

서울시, 프랑스 양자기업 ‘관델라’ 유치… 800억 투자협약

지난 10월 파스칼 유치이어 두번째 관델라, 캐나다·독일 등 지사 운영 현재까지 양자컴퓨터 4대 공급 서울형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서울시가 지난 10월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 파스칼(Pasqal) 유치에 이어, 광자(Photon) 기술 기반의 프랑스 양자기업 관델라(Quandela)를 서울에 유치했다. 초고속 연산 등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컴퓨팅의 혁신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양자 기업들이 잇따라 서울을 투자 거점으로 선택하면서 서울이 양자 산업 등 신산업 분야 투자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9시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관델라와 총 5700만 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니콜로 소마스키(Niccolo So-



서울시청 본관에서 12일 열린 서울시 관델라 투자유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오른쪽)과 니콜로 소마스키 관델라 공동창립자이자 CEO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maschi) 관델라 CEO,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 김유석 관델라 한국지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관델라(Quandela)는 2017년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니콜로 소마스키(Nicco-

lo Somaschi), 발레리안 지에즈(Valerian Giesz) 등 3명이 공동 설립한 광자(빛의 입자·Photon)를 이용한 양자컴퓨터 시스템 제조전문 기업이다.

파리 남서부 마시(Massy)에 본사를 둔 관델라는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지사

를 운영하고, 전 세계 약 150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자컴퓨터 4대를 공급해 유럽고성능 컴퓨팅공동추진기구(EuroHPC)의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잇따른 프랑스 양자기업과의 협약을 계기로, 서울이 양자컴퓨팅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형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를 가한다. 시는 ▲산·학·연·관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핵심인재 양성 ▲양자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 지원 등 양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관델라 본사 및 한국지사와 연구개발 인프라·입지·인재 등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서울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평가받으며 연구개발센터 설립 투자 확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

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니콜로 소마스키(Niccolo Somaschi) 관델라 공동창립자이자 CEO는 “서울시와의 협력은 관델라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정표”라며 “관델라는 혁신, 연구, 산업 응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양자 기술이 실제로 접근 가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태계를 서울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은 우수한 인재와 기술 인프라, 그리고 혁신의 에너지를 갖춘 도시로 이번 관델라의 서울 투자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라며 “서울의 양자 생태계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양자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의 서울 투자를 더욱더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왕복 6차로 인천 ‘제3연륙교’ 내년 1월 개통

송도·영종·청라 잇는 4.68km 해상교량

내년 1월, 송도·영종·청라를 하나의 공항경제권으로 잇는 ‘제3연륙교(청라 하늘대교)’의 완공을 앞두고 이목을 끌고 있다.

인천광역시 건설 중인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량을 넘어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왕복 6차로, 길이 4.68km 규모의 이 해상교량은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포함된 인천 최초의 ‘복합 교량형 공공시설’로, 기술·디자인·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인프라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과 혁신을 중시에 두었다. 초고강도 케이블과 고성능 콘크리트, 스마트톨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됐으며, 주탑은 인천의 상징색 ‘빨미도등대색’, 상판은 ‘첨단미래색’으로 마감됐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문(門)



인천시 제3연륙교 건설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형식의 사장교 구조로, 포스코의 특수강재(HSB)가 적용돼 내구성과 디자인 모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주탑 상부 전망대는 세계 최고 높이인 해발 184.2m로 미국 페놈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128m)를 뛰어넘는다. 지난 10월 29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 인증을 받았으며, 기네스 북 등재도 추진 중이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서울시-국민대, 청소년 예체능 클래스 운영

18일까지 취약계층 40명 대상 미술·음악·체육·무용 4개분야

서울시가 예체능 계열에 관심과 재능이 있지만 높은 사교육비가 부담돼 진로 탐색 기회를 얻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대학에서 전공 실습 수업을 받아보는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를 마련한다. 참여 학생들은 내년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국민대 캠퍼스에서 과정별 무료로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국민대와 협력해 겨울방학부터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40명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런 누리집에 공지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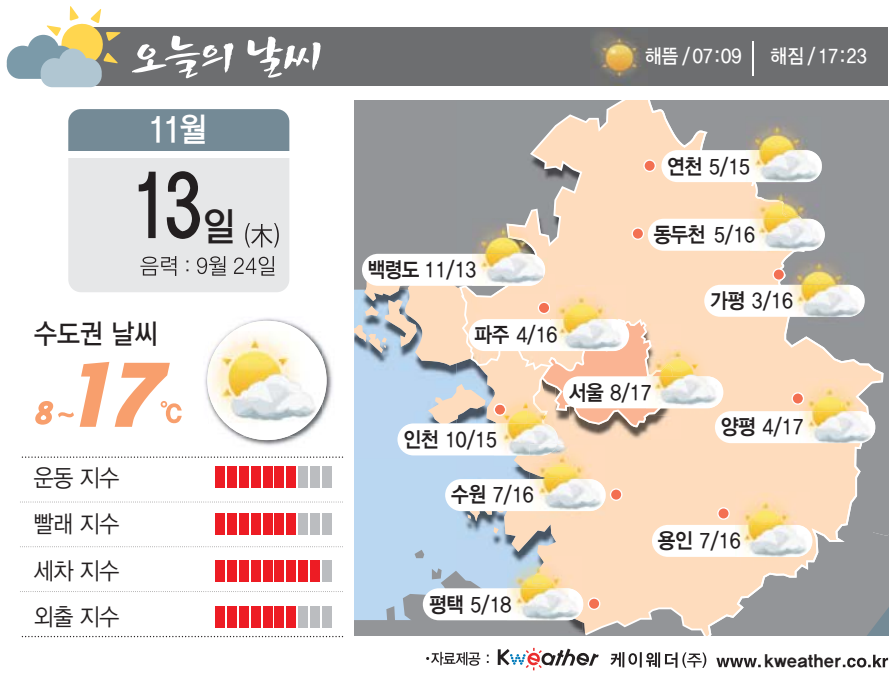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는 그동안 주

로 학습 지원에 집중해 온 서울런을 진로 탐색·역량 강화 분야까지 확장하는 ‘서울런 3.0’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클래스는 ▲미술(회화+디자인) ▲음악(바이올린·플루트 중 택1) ▲체육(골프·필라테스 중 택1) ▲무용(순수+실용),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국민대 교수와 강사진이 직접 지도하며 3주 동안 6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전공 실습이 이뤄지게 된다.

참여 학생들은 클래스에서 실습한 작품을 1월 말 열릴 폐회식에서 전시 또는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겨울방학 시범운영 성과와 참여 학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권역별 오프라인 캠퍼스 등을 활용,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정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보안감사 ‘최우수기관’

차기 보안감사 1년 유예 혜택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교육부 보안감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굳건한 보안 체계 구축과 함께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인원, 문서, 정보보안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교육청은 반복해서 지적되는 취약분야와 자체 보안감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 분석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총무계획에 따른 전용 보안시설 구축·운영으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보안 체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또한 담당자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관련 상담을 수시로 시행하고, 현

장 중심의 자체 컨설팅 등으로 수요자 맞춤 보안 연수를 추진해 보안실무자의 역량을 높였다.

교육부의 이번 감사 결과 최우수기관 1곳과 우수기관 4곳이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인 도교육청은 차기 보안감사 1년을 유예받으며, 관련 유공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한 보안 수행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더욱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메트로 한줄뉴스



▲“여행 돈 더 들겠네”...외국인 출국세·비자수수료 인상 검토 /사진 뉴시스
▲러, 외교부 대변인 등 일본인 30명 입국금지...대러 조치 보복

▲오바마, 한국전쟁 참전용사 비행기 깜짝 등장...“여러분 희생 기억”
▲‘가자 평화’ 약속하더니...“트럼프 행정부, 종전 가능성에 의구심”

▲‘트럼프 연설 짜깁기’ 사임 BBC 사장 “저널리즘 위해 싸워야”
▲후주 “中 해커,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 침투 탐색...경제 마비 우려”